

경북도립대학교



미국엔 주립대학
일본엔 현립대학

한국엔 **경북도립대학교**

심도정의 중심대학



2015학년도 경북도립대학교 신입생 모집 안내 (입학전형일정)

모집구분	전형구분	원서접수	면접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기간
정시모집 1차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특별전형	2014. 12. 19 ~ 2015. 1. 2	미 실시	2015. 1. 7	2015. 1. 26 ~ 1. 28 (총원등록 1. 29 ~ 2. 9)
정시모집 2차	일반전형, 특별전형	2015. 2. 10 ~ 2. 14	미 실시	2015. 2. 16	2015. 2. 17

◆ 정시모집 2차 종료 후 추가모집, 총원등록 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

* 면접 시 신원확인용 위한 신분증, 간단한 필기도구 등 자함(부족하면 사정으로 인한 면접 불합자는 전화연접을 실시할 수도 있음)



경북도립대학교
GYEONGBUK PROVINCIAL COLLEGE

757-807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114(청백리 947-1)
입학상담 054. 650. 0112 홈페이지 <http://www.gpc.ac.kr>

발간등록번호 75-6470000-000162-08

[통권 400호]
WINTER

겨울

세련을 아는 경북, 입자리가 있는 경북

Pride
GyeongBuk
프라이드 경북

할매·할배의 날이 왔어...

경상북도가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로 정합니다.

동구 밖에 낫선 차 소리만 들려도
아들 며느리가 싶어 땀이 날아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데 방해 될까봐
먼 길 피곤할까봐
보고싶다는 말 한마디 쉽게 할 수 없으셨던 어르신들.

그날이 오면 우리 '손자' '손녀'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녀석'들이 됩니다.

할매 할배
사랑해요



CONTENTS

PRIDEGYEONGBUK
WINTER. VOL.400

Special Theme	04 김관용 도지사, KBC목민자치대상 광역자치단체장상 수상! 06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제정·선도
알찬살림 부자경북	08 2015년 국가투자예산 11조원 시대 열었다! 10 울진·영덕 원전 현장, 정부 지원 약속 이끌어 내
웃음가득 행복경북	12 한국정신문화 표본 '경북정체성 이론집' 봉정(奉呈) 14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출범, 모금목표액 115억원 15 결혼이민여성 학위취득 지원사업, 성과 보인다!
밝은미래 희망경북	16 WHY? 독도! 18 세계 3대 국제 종합스포츠타워, 경북 문경서 열린다!
도민사랑 일류경북	20 제7회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 수상 22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창립총회, 현판식 가져
나드리 이리 오이소~	24 보현산다목적댐 준공, 영천 새로운 명소 탄생 26 가 불만한 매력적인 자전거길 28 겨울의 맛 - 포항 과메기 30 건강상식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은 이렇게!
프라이드 News+	31 찰칵! 경북의 오늘 36 도정 단신 42 도의회 소식 50 경북 알리미 52 지금 시·군에서는



표지 이야기

신라 말기 승려 도선이
이 곳에서 도를 깨우쳐서
'도선굴'로 불리는 천연동굴에
2015 희망찬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2014 경북관광사진공모전 동상
- 임종화 '도선굴 일출'



WINTER

- 발행처 | 경상북도 · 발행인 | 김관용 · 편집인 | 권영길 · 발행일 | 2015년 1월 1일
- 문의처 | 경상북도 대변인실 702-702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
TEL. 053)950-3058 FAX. 053)956-4926
- 도정 홍보지 「프라이드 경북」의 구독을 원하시거나 주소가 바뀌신 분은
경북도청 대변인실(053.950.305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C목민자치대상 광역자치단체장상 수상!

시상금 1억원 영호남 상생기금으로 기탁

김관용 도지사가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다산 정약용의 철학과 정신을 계승한 지방자치 발전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KBC목민자치대상 광역자치단체장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김 지사는 구미시장 3선과 경상북도지사 3선이라는 전국 최초의 기록을 가진 20년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증인으로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영호남 상생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2월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시상식에서 목민자치대상을 수상했다.



KBC목민자치대상은 광주·전남 대표 지상과 방송사인 KBC광주방송과 KBC 문화재단이 다산의 목민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공로가 큰 일꾼, 지역 자치단체장을 발굴·성원하기 위해 제정했다.

이는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 혁신적 시책을 평가하는 '창의적 마인드',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클린 리더십을 보는 '윤리적 리더십',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 행정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주민복지 증진' 등 3가지를 주요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다.

사상 초유 1억 원이라는 시상금을 수여하고, 수상에 따른 광고협찬 등을 일체 배제하여 기존의 각종 시상과는 달리 최고의 선명성을 자랑하는 상이다. 특히 김관용 도지사는 시상금 전액을 영호남 상생을 위해 기탁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공익법인과 실무적인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써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까지를 대상으로 한 높은 권위의 상이며, 다산 정약용의 유배시절 철학적 성찰로 목민심서를 완성한 귀양지였던 호남지역의 대표 언론사에서 '애민(愛民) 관료(官僚)' 다산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한 매우 의미 깊은 상이다.

다산 정약용이 저술한 '목민심서'는 지방관의 윤리적 각성과 농민 경제의 발전을 다룬 것으로 지방의 관리로서 수령이 백성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조선과 중국의 역사서를 비롯한 여러 책에서 뽑은 것들이다.

부임하는 일에서 시작해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법,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는 법,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법, 백성을 사랑하는 것, 아전들을 단속하는 법, 세금, 예절, 군사, 재판, 그리고 흥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법, 그리고 퇴임하는 일을 기술하였다.

이번 수상은 이와 같은 다산의 목민관(牧民官)에 대한 철학을 현재의 지방자치에 실천한 이에게 주어진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매우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할 수 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난 20년 간 도민을 열심히 모시다 보니 이런 영광스런 상을 주신 것 같다. 도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도민들께 감사드리며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도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 경북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할매·할배의 날

전국 최초, 조손간 소통과 격대(隔代)교육 위한 계기 마련

경상북도는 김관용 도지사가 민선6기 공약으로 제시한 '할매·할배의 날'을 제정, 10월 25일 예천문화회관에서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3대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할매·할배의 날' 선포식을 가졌다.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도교육감이 공동 발표한 선포문에서는 "손자·손녀가 조부모님을 찾아가 삶의 지혜를 배우고 소통하는 날로, 인성이 넘치는 행복한 사회구현"을 제정목표로 밝히며, '할매·할배의 날'이 지속가능한 기념일이 되도록 매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제시했다.

경상북도가 제정한 할매·할배의 날은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관료이자 명문가 사대부였던 이문건(성주, 1494~1567)이 16년간 손자 양육을 기록한 '양아록(養兒錄)'에서 근본을 찾을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14개 국가에서 '조부모의 날'을 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78년 '조부모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 원만한 가족관계 형성과 조부모의 삶의 지혜를 배우는 날로 정하고 있다.

아프리카에도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속담이 있다. 살아온 세월의 연륜과 지혜가 쌓인 어른에게 그만큼 배울 것이 많다는 뜻인 것이다.

이처럼 젊은이를 위한 교육, 특히, 손자·손녀의 인성교육에는 그만큼 조부모의 지혜와 경험이 중요하다는데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준다.

또 경북도에서는 제정 이후 첫 '할매·할배의 날'을 맞아 지난 11월 29일 김관용 도지사와 도청 간부공무원들이 도내 23개 모범가족을 방문, '화목한 격대가족상'을 시상했다. 김관용 도지사(성주군), 행정부지사(경주시), 경제부지사(구미시), 정무실장(청송군)과 간부공무원들은 도내 23개 가족을 직접 방문해 '화목한 격대가족상'을 전달하고, 가족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가족은 대한노인회 경북도연합회의 추천과 시·군의 검증을 거친 도내 23개 가족이며, 4대가 함께 사는 가족, 외조모를 모시는 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을 선정, 특히, '할매·할배의 날'의 제정배경이 되는 양아록의 저자 이문건 선생의 후손인(성주 이씨) 이용진(80세), 여영동(75세) 두 가정이 포함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이 행사는 조손간의 세대 공감과 소통문화 창달을 위해 제정된 '할매·할배의 날'의 취지를 살려, 조손간의 격대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노하우를 배워 '할매·할배의 날' 추진에 접목하려는데 의미가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 내년 1월까지 할매·할배의 날 제정과 취지를 대구시 등 대도시까지 확대해 집중 홍보하면서, 교육청·기업체·공공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집중할 것이며, 내년 2월부터는 손주가 조부모님을 찾아가는 단계로 전환해 격대교육, 행사·이벤트, 공모전 등 다양한 계획을 추진한다.

김관용 도지사는 "할매·할배의 날은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는 작은 실천에서 출발해 더욱 발전하고 확산될 수 있다. 할매·할배의 날이 세대 간의 소통과 삶의 지혜를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600만 시·도민과 출향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특히 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5년 국가투자예산 11조원 시대 열었다!

2014년 대비 1조 151억 원 증액,
역대 최고 국비 확보

연도별 국가투자예산 확보 추이



경상북도가 2015년도 국가투자예산 11조 2,788억 원을 확보, 2014년도 10조 2,637억 원보다 1조 151억 원이 증가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민선 4기 초 김관용 도지사가 취임한 이듬해인 2007년도 2조 원보다 5.5배가 증가한 규모다.

김관용 도지사는 올해 초부터 2015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수차례 당부하고, 주낙영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실국장을 반장으로 한 '국가투자예산확보 T/F팀'을 일찌감치 가동함으로써 이루어 낸 결실이다.

무엇보다 경북도는 신규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중앙부처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연구기관 등을 수시로 방문해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 국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자되는 예비타당성 선정사업 3건과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김천~구미 국도 건설, 영덕 강구항 개발 등 신규사업 50개 사업을 반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들 53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2조 8,397억 원으로, 2015년 899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경북도는 오랜 숙원이던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 지금까지 진척이 없었던 국책사업 원자력인력양성원 설립(총사업비 353억 원)에 10억 원이 반영되어 이제야 첫 단추를 꿰게 됐다.

2015년도 반영된 사업들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SOC분야에 총 6조 3,243억 원이 반영되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4,540억 원,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2,500억 원, 중부내륙고속 복선철도부설(경기~이천 문경) 800억 원,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2,278억 원,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1,357억 원 등이 투입되어 그동안 소외되었던 동해안의 접근성이 크게 나아지고 경북 북부권의 발전과 변화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항만분야에 있어서도 울릉 사동항 개발 550억 원, 포항 영일만항 건설에도 479억 원이 반영됐다.

R&D분야에는 총 5,823억 원이 반영됐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레이첨단소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157억 원,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육성사업(구미) 340억 원,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영천) 66억 원, 수중건설로봇 개발사업(포항) 115억 원,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 설계지원센터 구축(경산) 50억 원 등 계속사업과 나노융합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사업(포항) 37억 원, 수송기기 및 일반조명분야 LED융합인력양성사업(경산) 20억 원 등 신규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경북도에 직접적 경제효과를 당장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문화분야에는 총 3,81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3대 문화권조성사업(33개 사업)에 1,318억 원, 신라왕궁·황룡사·월정교 복원사업에 114억 원 등 계속사업과 대한민국의학박사기념 건립(상주)이 신규사업으로 10억 원이 반영되었다.

환경분야에는 총 5,168억 원이 반영되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립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영양) 247억 원, 경북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 156억 원 등의 계속사업과 성주읍 하수도정비 종합관리지역 정비사업 74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

농림수산분야에는 총 9,286억 원이 반영되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해안 국가어항 보수·보강 435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09억 원, 숲가꾸기사업 300억 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50억 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조성(영주) 101억 원, 붉은대게 식품단지 조성(울진) 34억 원,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조성(포항) 43억 원 등이 포함됐다.

경북도가 국가투자예산 11조원 시대를 열게 된 것은 계획단계에서 중앙부처와의 교감, 정부안 확정단계에서는 기획재정부와의 끊임없는 사업설명회 개최 등 진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정협의회 개최, 정책보좌관과 수시간담회 개최 등 15명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역할을 분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했기에 가능했다. 특히, 경북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들은 국회 심의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실에 캠프를 차려 정보교환과 증액 및 감액 대응책을 사전에 세워 한 톨의 예산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국비 11조원 시대를 열게 해 준 지역구 국회의원 15명과 경북도 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헛되지 않게 광역 SOC인프라 구축, 미래첨단산업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조기실현, 도민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중심 경북세상'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진 · 영덕 원전 현장, 정부 지원 약속 이끌어 내

정홍원 총리, 울진 원전 현장과 영덕 원전 예정지 찾아 지원 약속
김관용 도지사, 지역 민심 전하며 정부차원 특단 대책 요구



PRIDE Gyeongbuk

김관용 도지사는 국내 원전의 절반이 경북 동해안에 몰려 있음에도 정부차원이 지지부진한데 따른 지역민심의 동요를 중앙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 11월 21일 마침내 정홍원 국무총리가 울진과 영덕을 방문해 원전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내놔다.

이날 오전 울진군청에서는 정홍원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울진군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지난 1999년부터 15여 년간 타결하지 못했던 신한울 1~4호기 추가건설에 따른 8개 대안사업에 대해 전격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합의한 대안사업은 북면 장기개발계획 시행, 울진 종합체육관 건립, 관동팔경 대교가설, 울진 지방상수도 확장, 자사고 설립, 울진의료원 한수원 책임경영, 한수원 휴양소 및 연수원 건립 등이다. 이들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8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명식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도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 에너지정책을 이해하고, 원전 건설부지 제공 등에 적극 동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고, “원전과 같은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정부차원의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1월 18일 지역민심을 확인하기 위해 울진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관용 도지사는 “울진은 벌써 원전 6기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4기가 더 들어와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너무 미온적이다”며, “그동안 고통을 참고 정부 에너지정책을 지켜준 군민들에게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다”는 말로 정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이어 정 총리는 김관용 도지사와 함께 영덕군청으로 자리를 옮겨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민대표, 시민단체, 영덕포럼위원, 지역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해 원전 신규 건설에 따른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여 건의한 대

부분의 사업들을 정 총리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이 자리에서도 기대 이상의 정부지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그동안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해 온 원전 예정지에 편입되고 남은 영덕읍 노물리 잔여면적에 대한 추가 편입도 해결될 전망이다. 이날 한수원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 영덕군 전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조기공급 건의에 대해서도 정 총리가 배석한 산업부 장관에게 직접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외에도 정 총리는 신강구항 개발사업 및 의료서비스 개선 건의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국가여항에서 연안항으로 승격된 신강구항이 관광레포츠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의료시설이 열악해 불편했던 주민들에게도 개선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이 생기게 됐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의 원전현장 방문에는 윤상직 산업부장관, 조정규 국무2차장, 조석 한수원사장 등이 수행해 정부의 약속과 대책의 신뢰를 높였으며, 지역출신 강석호 국회의원도 전 일정을 함께하며 지역에 많은 힘을 보탰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관용 도지사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총리께서 직접 지역을 방문해 지역발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제시해 준 것은 정말 다행”이라며, “그동안 우리 경북은 도민의 희생을 등에 업고 국가 에너지 주권을 지켜왔고, 국가 에너지정책의 버팀목 역할을 다해왔다. 그런 만큼 이제는 정부가 국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를 가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신문화 표본 '경북정체성 이론집' 봉정(奉呈)

'한국 정신의 창', '길을 여는 사람들' 경북정체성 정립

경상북도가 지난 4년 여에 걸쳐 지역의 역사와 정신문화를 연구, 경북의 혼은 '한국 정신의 창'이며, 경북사람은 '길을 여는 사람들', 경북지역은 '정신문화의 본산'이라는 경북정체성의 이론적 개념체계를 완성, 이론집으로 집대성하여 '경북정체성 이론집'을 발간했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11월 27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김관용 도지사, 장대진 도의회의장, 심우영 경북 정체성 포럼위원장, 이용두 한국국학진흥원장, 전옥상 재경시도민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정체성 이론집 봉정식행사를 가졌다.

Window to the Spirit of Korea

경북정체성 이론집은 경북의 역사속에서 화랑정신(고대 삼국통일), 선비정신(중세, 올곧음), 호국정신(근대, 애국애족), 새마을정신(현대, 근대화 초석)을 시대순으로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지난 4년 동안 지역과 학계의 수많은 연구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경북정체성포럼' 활동으로 화랑(원류), 선비(정수), 호국(품격), 새마을(나눔)의 경북 4대 정체성을 정립했으며, 역사 속에서 축적된 경북정체성의 정수를 한데 모아 '경북의 혼, 한국 정신의 창'이라는 이론으로 집대성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경북정체성 이론집 발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한국정신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그 내용과 구성면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를 대표하는 표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론집 구성은 총론과 각론, 그리고 결론 등 3부로 구성, 450여 페이지 분량으로 생생한 기록과 역사적인 사진도 함께 체계적으로 편집해 구성·제작했다.

총론에는 올곧음(정의), 신바람(신명), 어울림(화의), 나아감(창신) 등 4대 정신이 각각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줄기를 이루며, 통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각론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시대별, 정신별로 구체적으로 경북정신 문화의 역사를 이론적으로 설명했으며, 결론 부분은 '미래를 여는 정신의 창'으로 경북의 정체성을 재인식하고 브랜드화 하여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경북도는 이번 이론집 발간을 계기로 경북의 혼을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이론정립단계에서 더 나아가 시·군정체성 선양, 학교 및 청소년 정체성 교육사업, 해외홍보사업 등 경북정체성의 본격적인 선양·확산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민족 역사문화와 국가발전의 중심에서 항상 주인공이었던 우리 경북이 정체성의 확고한 정립과 이론화를 통해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창을 더욱 밝히고, 국가정체성 확립과 세계를 향한 문화융성의 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경북정체성 이론집 발간의 의미와 포부를 강조했다.



※ 봉정(奉呈) : 문서나 문집류를 삼가 받들어 올림

작은 기부! 사랑의 시작!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출범, 모금목표액 115억원

경상북도는 11월 19일 도청 전정에서 김관용 도지사, 장대진 도의회의장, 이영우 도교육감, 신현수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사회복지지시설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 기부, 사랑의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11월 20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전개되는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관용 도지사의 희망메시지 선포,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과 함께 경북 도민들의 소중한 성금으로 마련한 승합차 32대(7억 9,200여만 원)와 경승용차 4대(5,100만 원 상당)를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36개소에 전하는 '사랑의 열매 차량 전달식'이 진행됐다.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모금목표액은 115억 원으로, 지난 해 목표액 107억 원보다 7.3% 증가한 금액이다. 경북도청 전정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은 이웃사랑 성금이 모일 때마다 행복 온도지수가 올라가며, 모금목표액 115억 원이 모이면 100℃를 달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이웃사랑과 나눔실천을 위한 캠페인 기간 동안 23개 시·군(읍면동 주민센터)을 통해 성금을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언론사 방송모금, 가두모금 캠페인, 금융기관 모금, 학교 모금, 전화 한 통에 성금 2천 원을 기부하는 ARS(060-700-0060) 모금 등 다양한 나눔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김관용 도지사는 희망메시지에서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많다. 작은 기부가 곧 사랑의 시작"이라며, "아름답고 가슴 따뜻한 기부를 통해 작은 희망을 실천하는데 도민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 '희망2015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계좌

- 농 협 731-01-002268 경북공동모금회
- 대 구 021-05-780444-001 경북공동모금회
- 우체국 700674-01-001682 경북공동모금회

➔ 당행 이체일 경우 수수료 면제
(문의처 : 053-950-7813~15)



결혼이민여성 학위취득 지원사업, 성과 보인다!

경쟁력 강화 통한 사회참여 확대에 상당한 기여

경상북도가 다문화가정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학위취득 지원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결혼이민여성이 대학, 검정고시 등 학업을 희망할 경우 1인당 1백만 원 이내로 학비를 지원하는 학위취득 지원 사업을 2010년부터 시작, 2013년까지 대학교 147명, 방송통신대학 71명, 사이버대학 21명, 검정고시 13명 등 총 252명의 결혼이민여성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98명을 지원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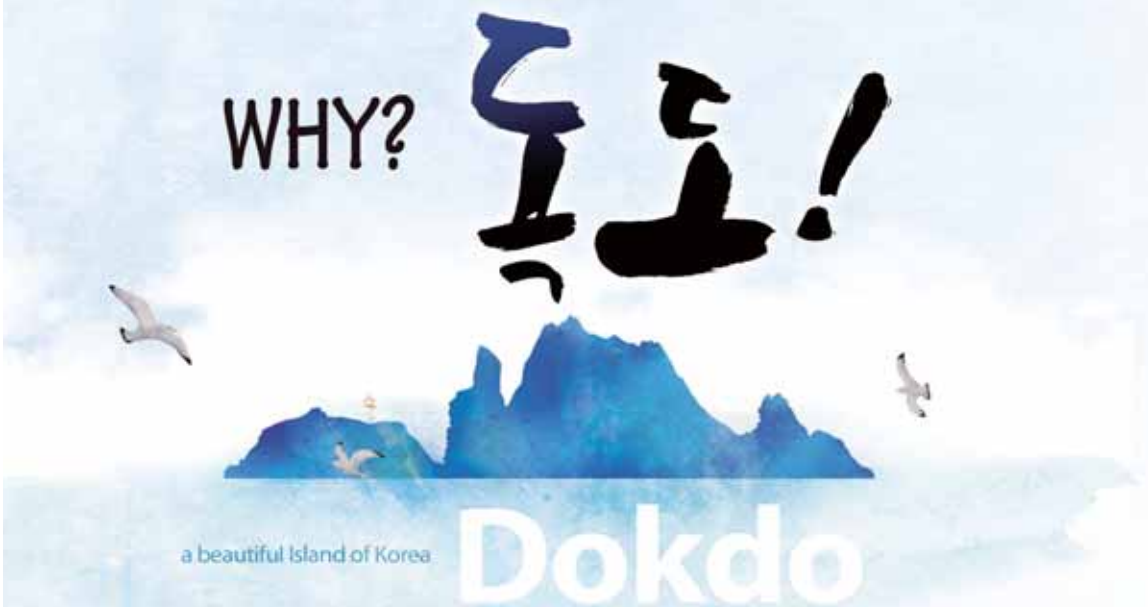
또한 경북도에서는 2011년부터 도내 18개 대학과 학위취득지원 MOU를 체결, 학위취득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각 대학에서도 재학 중인 결혼이민여성에게 반액 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학비지원을 받은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면 수혜자 총 252명 중 43.2%인 109명이 취업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그 중 상당수는 자신들의 장점인 이중언어능력을 살리기 위해 외국어를 전공해 통·번역사 이중언어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계열 전공자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다문화센터 방문교육지도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결혼이민여성의 경우에는 능력을 인정받아 포스코, LG전자 등 대기업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병원 등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는 등 부단한 노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학위취득 지원사업이 다문화가족의 사회진출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량강화가 중요하고, 결혼이민여성 학위취득사업이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도내 다문화가족이 지역주민과 어울려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주장 '무주지 선점론' 허구, 학술대회 열어

경상북도는 12월 5일 영남대학교에서 일본의 아베정권이 지난 해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 설치 후 일본의 주장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고문서를 통해 '독도의 실체'를 규명해 우리의 독도 영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학술대회를 개최, 메이지시대 일본정부 공문서, 관찬서와 일본 해군성 작성 수로지, 항토지와 지리지에서 나타난 독도에 관한 기록들을 분석, 일본이 독도에 대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과 '무주지 선점론'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독도와 동해 표기, 우선 미국부터 설득해야

경북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동해와 독도 정책토론회' 열어

경상북도는 12월 2일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지리학 및 영토학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영토학회 주관으로 '동해와 독도 정책토론회'를 개최, 1991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이후 본격화된 동해 명칭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동해와 독도 명칭 확산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성재 경북대학교 교수는 "1992년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 총회(UNCDSN)에서 최초 동해표기 문제를 제기했을 때 0.3%였던 동해 표기 비율이 2009년에는 28.1%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으며,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종합토론에서 "한일 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며, 특히 미국의 여론 주도층을 설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북도, 찾아가는 청춘 독도 강연회 개최

독도에 대해 올바르게 알리는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 강조

경상북도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11월 27일 경북도립대학교에서 '독도문제와 국제사법재판소(ICJ)'라는 주제로 영남대학교 이용호 교수 초청 '청춘 독도 강연회'를 가졌다. 이번 강연회는 최근 일본정부가 위안부 강제 연행 사실을 부인하고, 독도를 국제분쟁화 하려는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국제법적 시각에서 독도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한 외국인 통해 '우리 땅 독도' 알린다!

주한 외국경제인, 교수 등 참여, 독도 워크숍 개최

경상북도가 주한 외국인 오피니언 리더를 통해 독도영토주권의 실체 알리기에 나서 11월 14일 포항 포스코 청송대에서 주한 외국경제인, 교수 등 20여 명의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북의 해양정책과 독도 워크숍'을 열었다. 이는 경상북도의 환동해발전 정책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독도영토주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행사에 참가한 조셉 스몰스키(제명대 실내환경디자인과) 교수는 독도의 위치와 크기 등 지리적 환경에 대해 자세히 묻고, "경상북도의 독도에 대한 열정이 놀랍다. 기회가 되면 독도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진도의 소리와 흥! 독도에 울려 퍼지다

전남 진도 소소리 마을주민 40여 명이 독도의 달을 맞아 10월 29일 독도에서 국가 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제8호인 강강술래 공연을 펼쳤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전술에서 유래된 진도 강강술래와 북놀이 진도 마을 주민들이 본업인 농사일을 하는 도중 짬짬이 시간을 내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전통민속 놀이로써 독도사랑과 수호의지를 되새기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2014 대한민국 독도문화 대축제, 서울서 대대적 행사

전국 독도 등록기준지 국민 초청 독도수호 결의

경상북도는 '독도의 달'을 맞아 10월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4년 대한민국 독도문화 대축제'를 성대하게 열었다. 이번 대축제는 경상북도의 독도지킴이 독도재단이 나라살리기 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주관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고 독도에 대한 사랑을 문화예술로 보여주고자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로 특히, 이번 행사에는 평소 독도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전국의 독도 등록기준지 국민(2014. 9월 현재, 3,036명) 중 200여 명을 초청, 독도수호 결의를 다지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세계 3대 국제 종합스포츠대회, 경북 문경서 열린다!

지구촌 최대 군인 스포츠 축제, 세계군인체육대회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는 2015년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전세계 130여 개국 선수단, 임원진 등 8,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구촌 최대의 군인 스포츠 축제로 열린다. '스포츠를 통한 우정(Friendship through Sport)'라는 CISM(Conseil International du Sport Militaire,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 이념 아래 전 세계 군인들이 우정과 화합을 다지고, 인류애를 되새기는 '평화의 축제' 한마당이 성대하게 펼쳐진다.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군인들의 평화의 축제, 세계군인올림픽이다. 군인체육대회를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CISM)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올림픽을 주관하는 조직이 국제올림픽위원회이듯,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주관하는 조직이 바로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이다.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의 역사는 제 1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 군인 간 상호우의를 다지기 위해 체육대회를 열었던 것이 그 출발점이다. 이후 제 2차 세계대전 후 전승국 군인들간에 체육기구를 결성했으나 미·소간 알력으로 와해되었다가 1948년 프랑스, 덴마크, 베네룩스 3국 등 총 5개국이 모여 '스포츠를 통한 우정'을 모토로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라는 공식 기구를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1957년 그리스의 추천으로 21번째로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현재 회원국은 133개국에 달한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회규모도 상당하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FIFA 등 단일종목 국제연맹을 제외한 종합스포츠 대회 규모로는 올림픽(204개국), 유니버시아드(167개국) 대회 다음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국제 종합스포츠대회이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출범 후 1994년까지는 개별종목별 대회로 실시해오다가 1995년 이탈리아대회부터 올림픽처럼 종합스포츠경기로 확대해 4년 주기로 개최하고 있으며, 2015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회가 제6회 대회이다.

제6회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제6회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한민국 국군 창군 이래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로, 110개국 8,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2015년 국군의 날 바로 다음날인 10월 2일부터 11

Military World Games

일까지 총 10일간 국군체육부대를 중심으로 한 문경시와 경북 북부지역의 안동, 김천, 영주, 영천, 상주, 예천, 해양종목 개최지 포함 등 8개 시·군에서 경기가 진행된다.

경기 종목도 다채롭다. 축구, 복싱, 양궁 등의 일반종목 19개와 군사종목 5개 등 총 24개 경기가 진행된다. 그중에서 군사종목은 육군5종, 해군5종, 공군5종, 오리엔티어링, 고공강하로 군인만의 특성화된 경기종목이다. 특히, 육·해·공군 5종 경기는 타 국제대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종목이다. 주목할 만한 종목은 육군·해군·공군 5종 경기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장애물달리기, 육군·공군 5종의 장애물수영, 해군 5종의 선박조종, 다목적수영, 인명구조수영, 공군 5종의 비행경기, 고공강하와 오리엔티어링 경기 등이 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는 대한민국과 우리 군에 또 다른 도전이요, 더 큰 성장의 기회이다.

그 의미도 남다르다. 우선, 여전히 남북한의 대치로 인해 언제 또 긴장국면이 닥칠지 모르는 한반도에서 세계군인들이 총칼을 내려놓고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회가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경이롭고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전 세계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 스포츠를 통해 세계평화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둘째로, 우리 대회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2014년 4월)에 의하면 다른 국제대회에 비해 사업비가 매우 적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유발효과 3,115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542억 원, 취업유발효과 2,855명 등 그 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류문화를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전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회기간 중 방산수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방산산업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방위산업체의 전시회, 현장견학 등의 프로그램에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동남아 등 국가정책에 영향력이 높은 주요인사를 초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방산수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대회준비는 어떻게?

조직위에서는 정부와 경상북도, 개최 시·군, 관련기관 등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통해 유기적으로 준비해나면서 대회운영시스템 구축, 경기장 운영계획수립, 숙식, 차량·인원 지원, 주관방송사 선정, 보안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대회를 1년여 앞두고 프레대회 개념으로 치러진 제61회 세계군인 육군5종 선수권대회(2014. 10. 8~16)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대회의 노하우 축적과 종합대회 운용능력을 제고시켰으며, 또한 성공적인 대회 운영으로 대회를 준비하는 조직위원회 직원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자신감도 향상시켰다.



24개 종목 중 군사종목을 제외한 경기장은 신축소요 없이 국군체육부대 경기장과 8개 개최 시·군의 기존 경기장을 그대로 활용하는 등 저비용으로 내실 있게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군인올림픽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가장 경제적이면서 성공적인 국제종합대회 개최의 첫 사례가 되어 국제기준 최저비용의 모델이 되는 일류명품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고 있다. 나아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군인들에게 생소한 대회가 아니라,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통해

군인스포츠가 대중화되고 전 국민,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그 날을 꿈꾸며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뛰고 있다.



경상북도, 온라인 소통 수준 전국 '최고'

제7회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 수상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소통 잘 하는 광역자치단체로 뽑혔다.

경상북도는 지난 11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시상식에 우병우 정부실장과 권영길 대변인이 참석하여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 전국 최고의 소통 수준을 인정받았다.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은 웹사이트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 대외활동을 종합 평가해 고객과 소통 활동이 가장 우수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 시상하는 상으로 한국인터넷소통협회에서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한다.



이번 평가는 지난 7월부터 4단계의 평가과정을 통해 실시됐다. 85개 지표로 구성된 인터넷소통지수(ICSI)와 소셜소통지수(SCSI) 분석 결과 B등급 이상을 받은 169개 공공기관과 263개 기업을 대상으로 7,500명의 고객 패널을 통한 고객만족도 조사, 전문가집단의 운영성 진단을 거쳐 최종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경북도는 지난 2012년부터 '두드림'이라는 이름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 채널

을 운영해오고 있다. 경북 23개 시·군의 행정소식과 관광정보, 축제현장의 다양한 모습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교환하며 적극적인 도정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경북도 두드림 SNS 채널은 다소 딱딱할 수 있는 행정 정보들을 동영상과 웹툰, 인포그래픽 등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제작해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 경북의 수려한 경관이나 도내 행사 일정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등 네티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호감을 높여 직접 방문하고 싶게 만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김관용 도지사의 남다른 관심도 한몫하고 있다. 2011년 2월 개인 페이스북을 개설한 김지사는 지금까지 약 8천 4백여 명의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을 정도로 미디어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편. 매일 두드림 SNS 채널에 올라온 콘텐츠를 확인하고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는 살뜰히 챙기고 있다.



권영길 대변인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요즘 단순 방문 수치보다는 SNS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통지수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경상북도 SNS 채널을 통해 도민들과 더욱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은 한 뿌리! 미래 함께 열자!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창립총회, 현판식 가져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새로운 상생협력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11월 25일 대구과이낸스센터에서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창립총회 및 현판 제막식을 개최, 대구·경북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불씨를 지폈다.

이날 행사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를 비롯한 시·도의원, 학계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창립총회와 김관용 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여하는 '현판제막' 행사로 나누어 열렸다.

지난 6월 1일 대구·경북 시·도지사 후보 시절의 '한 뿌리 상생선언' 이후 시·도지사의 상호방문과 시·도 간의 실무접촉을 거쳐 시·도의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를 제정·공포(경북도 10. 27 / 대구시 11. 10)했고, 경북과 대구의 새로운 상생협력을 위한 불씨가 될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를 구성했다.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시·도의 기획조정실장 및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20명과 시·도의 회, 학계, 언론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20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 양 지역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과제를 발굴·추진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한뿌리상생위원회는 그간 추진해 오던 협력과제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대구시, 대구경북연구원 및 민간 전문가의 사례 및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 제2차 회의에서 최종 논의·확정하기로 했으며, 과제는 시·도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풀기 쉬운 공동과제를 우선순위로 다루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낙영 부지사와 정태욱 부시장은 "지역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구·경북이 서로 머리를 맞대 노력하자"며, "화합과 경쟁력을 겸비한 가까운 이웃·형제·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뿌리상생위원들의 합심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대구·경북은 역사, 문화, 지리적으로 한 뿌리임을 다짐하는 뜻 깊은 이 자리에서 양 지역이 시·도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으로 지역현안 해결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권영진 대구시장과의 협력을 다짐했다.

경북 어르신! 치매걱정 마미소

? 이려면 나도 치매?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와 보건소가
여러분의 치매극복을 도와드립니다”

무료 선별검사

만60세 이상의 어르신

치매환자 지원

치매치료 관리비(저소득층)
실종 예방 인식표 제공

예쁜 치매쉼터 운영

치매예방 및 인지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치매예방 사업

환자 및 가족 교육
치매정보 제공
치매서포터즈 양성

보현산다목적댐 준공, 영천 새로운 명소 탄생

용수공급, 홍수조절은 기본! 소수력발전, 친환경공원은 덤!



별빛고을 영천에 새로운 명소가 탄생했다. 보현산다목적댐이 바로 그 곳이다.

경상북도는 11월 7일 김관용 도지사, 정희수 국회의원, 김영석 영천시장,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공사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현산댐 하류 공원에서 ‘보현산다목적댐 준공식’을 개최했다.

보현산다목적댐은 영천·경산 등 금호강 유역 물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로 안정적인 물 공급과 금호강·신녕천 등의 홍수피해 경감 등을 위해 경북 영천시 화북면 일대에 높이 58.5m, 길이 250m의 아치형 콘크리트 중력식 댐으로 건설, 2천 2백만 톤의 용수를 새로 확보, 약 1,500만 톤/년의 용수공급과 약 4백만 톤의 홍수조절 능력을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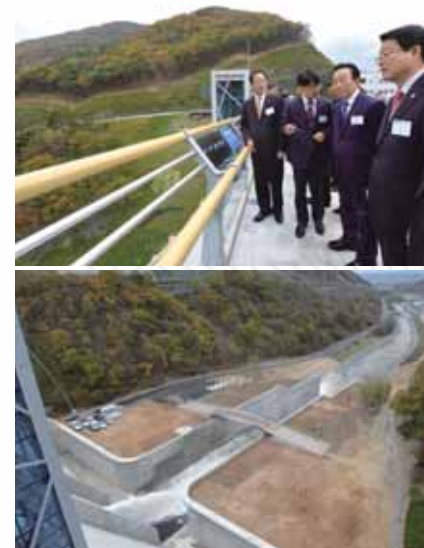
또 총 저수량 2천200만㎥의 담수 낙차를 이용해 170kW 소수력발전소에서 약 1,400Mwh/년의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 보현산댐은 준공식에 앞서 지난 5월부터 담수를 했으며, 10월 31일부터 소수력 상용발전을 시작한 바 있다.

댐은 총사업비 3,334억 원을 투입, 2009년 12월 타당성조사 완료,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2010년 7월 착공해 올해 댐 축조를 완료하고, 시험 담수를 거쳐 준공에 이르렀다.

특히, 보현산댐은 우리나라에서 다목적댐 중에서 처음으로 곡선미 넘치는 아치형댐으로 본댐 자체만으로도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댐 상류지역에는 관광객을 위한 30m 높이의 별빛전망대와 생태습지를 조성, 보현호를 조망하고 생태환경 체험공간으로 활용된다. 또 댐 하류에는 캠핑장, 분수, 물놀이장 등 다양한 체류형 체험시설과 주차장, 산책로를 갖춘 친환경공원이 조성됐다. 이는 인근의 보현산천문대와 영천시가 추진 중인 질라인(Zipline) 등과 연계,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전망이다. 새로 조성한 이주단지에는 체육공원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해 주민들의 주거여건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호응도가 높아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자주 찾고 있다.

준공식에 참석한 김관용 도지사는 “보현산댐 준공으로 확보된 신규용수는 금호강 유역 장래 물 부족 대처뿐만 아니라 영천시 미래 핵심 선도산업인 ‘항공부품산업’, ‘말(馬)산업’ 등의 육성에도 보탬이 되고, 댐의 홍수조절 능력 확보로 큰 태풍이 영천시에 오더라도 지역 주민들을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며, “오토캠핑장, 별빛전망대, 물놀이장 등 다채로운 문화 휴식공간은 보현산천문대와 더불어 영천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돋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 따라 들따라 두바퀴로 달리자!

새재·낙동강 자전거길 달리면 즐거움이 한가득

아름다운 새소리 들으며 강길 따라 잘 조성된 자전거 길을 두 바퀴로 달려보자. 자전거 길로 전국이 하나가 되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한강, 낙동강 등에 1,301km에 이르는 소통과 화합의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만들어졌다.

경상북도는 2010년도부터 문경시 이화령고개~상주시~상풍교 구간에 기존 폐지된 도로를 정비하고, 들길, 논길, 자연부락 마을길을 따라 54km, 상주시 상풍교~고령군 우곡교 구간까지 낙동강 제방쪽길, 산길, 농경지 길을 따라 126km, 안동시 안동댐에서 낙동강길 따라 예천지역을 거쳐 상주시 상풍교까지 연결되는 65km 등 총 245km의 자전거 도로를 조성했다.

특히, 상주 경천대 구간, 구미 금오공대 구간, 고령 MTB 구간 등 3코스는 안전행정부 '휴가철 가볼만한 국토종주 자전거길 코스 20곳'으로 선정됐다.

경천대 구간

경북 상주시 사발면(상풍교~낙단보)

코스 특징(장점, 매력)

- 낙동강 1,300리 물길 중 가장 아름다운 경천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구간
- 경천섬, 국립생명자원관 등 낙동강의 역사와 풍부한 생태자원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체험여행지로 환상의 코스
- 상주박물관, 낙동강 제1경인 경천대, 상주국제습지, 상주보, 도남서원, 낙단보 등 낙동강의 정취와 각종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곳곳에 산재

접근방법

대중교통

상주터미널 → 경천대(사발) 하차

차량이용

상주IC → 경천대 방면으로 약 8km 이동 → 경천대 구간

주변명소(www.sangju.go.kr/tour)

볼거리

상주국제습지, 상주자연과학박물관 등



금오공대 구간

경북 구미시 산동면 성수천에서 산호대교까지 구간

코스 특징(장점, 매력)

- 수려한 낙동강의 경관과 어울리는 자전거도로를 데크형 교량형태로 설치, 강 위를 달리는 시원한 경험
- 낙동강 자전거길 주변 도개면과 해평면에 문화유적지(모례가정, 도리사)가 산재해 있으며, 인근에 MTB 코스가 있어 아름다운 경관

접근방법

대중교통

구미역 하차 → 자전거 이용 옥계동 방면으로 약 6.1km 이동 → 금오공대 구간

차량이용

구미IC → 옥계동 방면으로 약 4.2km 가량 이동 → 금오공대 구간

주변명소(www.gumi.go.kr/tour/pages/main.jsp)

볼거리

가야시대 낙산리 고분군, 냉산 산악레포츠 공원(MTB 코스 등, 산악레포츠 시설 조성)

고령 MTB 구간

경북 고령군 청룡산(개진면 개포리~우곡면 예곡리)

코스 특징(장점, 매력)

- 경사가 완만하며 산악자전거 입문자에게는 최적의 코스
- 자연미를 살린 흙 포장, 자연과 어우러진 풍광, 낙동강의 빼어난 절경을 한 눈에 조망

접근방법

대중교통

고령시외버스터미널(606번 버스) → 개진 오사 2리 정류장 하차

차량이용

동고령 IC → 성산면사무소 → 양전삼거리 → 개진면 사무소 → MTB 도로 입구(11km, 20분 소요)

주변명소(utour.goryeong.go.kr/kor/main.php)

볼거리

달성보(항해를 시작하는 크루즈를 형상화), 개경포기념공원(호국과 민족의식이 깃든 개경포를 기념하여 만든 전망대, 탐방로), 고령기와(3대에 걸쳐 이어져 오는 곳으로 우리나라 한식기와의 55% 생산)





겨울이 오면 생각나는 포항의 특별한 맛,

과메기의 계절이 돌아왔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더욱 생각나는 먹거리가 있다. 바로 동해 푸른 바닷가에서 말려낸 포항 특산 과메기이다. 무공해 바닷바람을 맞으며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포항의 맛, 겨울별미로 다시 태어나는 과메기는 애주가의 술안주나 밥반찬으로 바닷가 사람뿐 아니라, 전국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포항 구룡포 어촌마을은 과메기의 계절을 맞아 더욱 분주해졌다.

과메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데는 적극적인 홍보의 역할이 크다. 지난 10년 간 구룡포 과메기 축제 추진위원장을 한 김성호 씨(46, 남양수산 대표)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 코엑스, 청계천 광장, 시민의 숲, 수산물 박람회, 부산 벡스코를 비롯해 전국 채매시장을 방문하여 시식회를 열고 현장 판매를 하며 과메기 홍보에 앞장서 왔다고 한다. 그 결과 이제 과메기는 포항 경제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중요한 품목이 되었다.

포항 구룡포 과메기 사업 협동조합의 김점돌(63, 구룡포읍) 조합장은 '구룡포 과메기는 450여개 소에서 5,770톤을 생산해 750여 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3,8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예전에는 바다만 바라보고 살아서 겨울이면 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구룡포로 들어온다. 겨울이면 노는 사람 없이 노인들도 경제활동을 한다.'며 '10월 중순 경부터 2월 말까지 구룡포의 모든 생활은 과메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구룡포에서는 해마다 11월 중순 경이면 과메기 축제를 열어 과메기를 널리 알리고 있다.

과메기를 설명하는데 더 이상 특별한 미사여구가 필요할까. 술꺼내 즐기는 애주가라면 더욱 겨울철 과메기 생각에 침이 꿀꺽 넘어가기 마련이다. 찬바람이 불면 당연히 과메기가 생각나고, 또 과메기 하면 포항이 떠오르는 등 어느덧 섯의 관계는 '겨울=과메기=포항'의 삼각공식을 이뤘다. 하지만 과메기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좋은 과메기를 생산하는 데는 햇빛과 바람과 온도가 세 가지가 잘 맞아야 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람이다. 바람이 잘 통하지 않으면 비린 맛이 나고 상하기 쉽다. 구룡포 과메기가 질이 좋은 이유는 강한 해풍에 건조되기 때문이다. 탁 트인 곳에서 마음껏 바닷바람을 호흡한 과메기는 살부분이 마지 고운 흙을 헤집어놓은 발고랑처럼 예쁘게 골이 나있으며 반질반질한 빛이 난다.

과메기 덕장에서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과메기가 말라가고, 새 과메기를 내는 작업이 분주하다. 가공 공장 한 편에서는 말린 과메기의 손질과 포장도 한창이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낸 명품 먹거리인 셈이다. 최근에는 말린 과메기를 냉동진공 포장하여 좀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포장을 구성해 전국으로 택배를 보내는데 대부분 당일 작업한 것을 보내 품질을 유지한다.

과메기의 원료인 공치는 북태평양의 청정바다에서 잡아 배에서 급냉하여 하역한다. 동해안에 북서풍이 불고 기온이 내려가면 본격적으로 과메기 생산 작업이 시작된다. 예전에는 통째로 쪄서 썰어 겨우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과메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배를 갈라서 건조시킨다. 이런 방법을 배지기로 한다.

배를 갈라 깨끗이 세척한 후 햇볕에 하루 말리고 2일간 응달에서 말리면 쫄쫄쫄하고 고소한 과메기가 된다.

다. 과메기는 DHA3와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고 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어린이 성장과 여성의 피부미용,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하다. 또한 숙취 예방에 좋은 아스파라긴산 그리고 노화와 체력저하, 뼈의 약화를 억제하는 핵산 등 남녀노소 모두에게 풍부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

과메기의 원조는 청어이다. 콩치 과메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옛 맛을 그리워하는 이들의 요구에 맞춰 작년부터 청어과메기를 생산하고 있다. 올해도 220톤의 싱싱한 청어를 확보하여, 콩치과메기처럼 빠듯 가르고 겹질도 벗겨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품으로 판매한다. 콩치 과메기에 비해 맛이 강해 호불호가 엇갈리지만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과메기는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소비자가 받아서 그대로 먹을 수 있게 포장된 제품이 나오에 따라 과메기뿐만 아니라 청정 배추, 쪽파, 마늘, 미역 등의 야채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 농가 소득에도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한다.

과메기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겹질을 벗겨 미역, 실파, 마늘, 야채, 김 등에 싸서 초장에 찍어 먹는 것이다. 숙취 해독 물질인 아스파라긴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술안주로 좋으며 술이 쉽게 취하지 않는다. 또 날것을 즐기지 않는 사람은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 초장이나 간장을 곁들여 먹어도 좋고, 고추장에 졸여먹기도 한다.

푸른 바다를 보며 먹는 과메기는 더욱 특별하다. 올 겨울, 먼 곳에 있는 친지가 친구에게 구룡포의 청정바다를 만들어낸 명품 과메기로 고향 소식을 전해보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주의사항 숙지 당부!

경상북도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12월에서 2월까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38건이 발생, 올해도 13건이 발생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많은 이유는 일반세균과 달리 낮은 기온에서 활발하게 성장하고, 적은 양으로도 발병이 가능하며, 추운날씨로 인해 개인위생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연명에 관계없이 감염될 수 있으며,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 섭취 후 24~48시간이 지나면 구토·설사·복통 등과 같은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며, 어린이,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탈수 증상 등에 유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굴, 조개 등 패류는 날것으로 섭취하지 말고 익혀 먹어야 하며,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먹어야 한다.

또한, 식중독 환자의 구토물이나 분변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으므로 실내에서의 청결 등 개인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손은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조리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을 해 사용해야 한다.

경상북도 이경호 식품의약과장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노약자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음식물 취급자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급식관계자는 식품안전에 대한 예방활동에 전념하고, 식중독 발생 시 관할 식품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담당부서 : 식품의약과 053-950-2397



찰카! 경북의 오늘 NEWS+

정부인 장계향 표준영정 봉안고유제 및 음식디미방 기공식

최고(最古) 한글조리서 음식디미방 저자, 한국여성 새로운 롤모델

경상북도는 10월 19일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에서 김관용 도지사, 권영택 영양군수, 기관단체장, 종손·종부,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도가 배출한 대표 여성인물인 '정부인 안동장씨(장계향) 표준영정 봉안고유제'를 개최, 두들마을 추모관(존안각)에 표준영정을 안치했다.

또 고유제에 이어서 3대문화권사업의 전략사업으로 우리나라 최고(最古) 한글조리서인 음식디미방을 활용해 3대문화권의 대표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2017년까지 총 268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영양 음식디미방 조성사업 기공식'도 함께 진행했다.

경상북도, 개도 700년 맞아 성대한 경북도민의 날 행사

'개도 700년! 힘찬 출발, 희망의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10월 23일 도청마당에서 김관용 도지사, 장대진 도의회 의장, 정수성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 도내 시장·군수, 기관단체장, 도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 도민의 날 행사는 예년과 달리 개도 700주년을 맞아 신도청시대 힘찬 새 출발을 위한 결의와 각오를 다지는 의미를 담아냈으며, 특히, 희망의 퍼포먼스를 통해 김관용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개도 700년! 힘찬 출발, 희망의 경상북도'를 외치며 희망의 비둘기와 함께 300만 도민의 꿈과 염원을 담은 풍선을 하늘로 비상시키는 장관을 연출했다.



경북도정 발전 유공 외국인사에 명예도민증 수여

경북 기초과학발전 및 농업기술 교류 활성화 기여

경상북도는 10월 29일 행정부지사실에서 독일국적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의 피터 폴테(Peter Fulde) 명예소장과 몽골 국립농과대학교 나상자르갈(Nasanjargal Tovuudorj) 교수 등 2명을 초청,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피터 폴테 명예소장은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 유치·설립에 크게 기여했으며, 나상자르갈 교수는 경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의 몽골 적응성 검토 등 농업기술교류에 많은 기여를 했다.

경상북도 명예도민증은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국내 다른 시·도 인사에게 도의회의결을 거쳐 수여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카디르 톱바쉬 터키 이스탄불 시장에게 수여했다.

경북도, 제19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성대히 열려

2014년 농어업인대상 전체 대상 영천시 이철형씨

경상북도는 11월 11일 군위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김관용 도지사, 장대진 도의회 의장, 농업관련 기관·단체장과 600여 명의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 '2014년 농어업인대상' 및 '2014년 경상북도 농정평가' 수상자를 시상했다.

올해 농어업인 대상 중 전체 대상은 영천시 이철형, 분야별 대상은 △식량생산 김천시 김경권 △친환경농업 영덕군 김현상 △과수 문경시 권순용 △채소·특작 성주군 이명화 △농산물 수출 안동시 황보기 △농수산물 가공유통 봉화군 박부교 △축산 포항시 김상울 △수산 울진군 권종석 △농어업공동체 상주시 안성환 △여성농업인 김천시 정정란씨가 각각 수상했으며, 시·군 농정평가 대상은 봉화군, 최우수수는 영주시, 예천군, 우수상은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이 차지했다.



키르기즈공화국 누르한벡 내각장관 경북도 방문

실크로드 통한 양 지역 교류협력 확대 추진

김관용 도지사는 11월 12일 모무날리예프 누르한벡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장관의 예방을 맞아 경상북도와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교류협력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문화·농업·실크로드·새마을교류를 통해 문화와 산업이 융합되는 교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누르한벡 내각장관은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대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내년도 경주에서 개최되는 2015 실크로드 문화대축전 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키르기즈공화국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의 핵심국으로, 한반도와 비슷한 면적에 인구는 566만 명, 고려인 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나눔실천! 2014 경상북도 자원봉사 대회

2014 경상북도 자원봉사대상 청도군 배기선씨

경상북도는 11월 12일 The-K경주호텔에서 김관용 도지사, 장경식 도의회 부의장, 도내 자원봉사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경상북도 자원봉사 대회'를 열고, 지역공동체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6명과 자원봉사 유공자 및 단체에 '2014 경상북도 자원봉사대상'을 시상했다.

올해 경상북도 자원봉사대상에는 청도군의 배기선씨가 선정됐으며, 금상에 구미시 이남도씨, 은상 포항시 조은숙씨, 김천시 김경규씨, 동상 영천시 이춘자씨, 고령군 정순옥씨 등이 나눔과 배려로 따스한 봉사의 온정을 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관용 도지사, 칠곡 백향과 작목반 방문 농업인 격려

FTA 대응, 대체과수 재배 농가 찾아 현장간담회

김관용 도지사는 11월 13일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에 위치한 백향과 작목반(대표 신봉열)을 찾아 과원을 둘러보고 농업인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도지사는 "최근 실질적으로 협상이 타결된 한중 FTA는 지금까지의 FTA보다 농업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백향과 등 대체과수는 FTA의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작목반에서 건의한 비가림시설 확충 지원 등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해결하라"고 지시, 농업현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엔평란 주부산 중국총영사 김관용 도지사 예방

경상북도와 중국과의 경제·문화교류 협력 높이 평가

김관용 도지사는 11월 20일 경상북도를 방문한 엔평란(閔鳳蘭) 주(駐)부산 중국총영사 일행을 맞아 올해 포항부품소재단지에서 간수성 위젠그룹이 3천만불을 투자하는 등 경제교류는 물론 산시성과의 인문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향후 경북도와의 경제와 문화교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엔평란(閔鳳蘭) 총영사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주북한대사관(1977~1981), 주광주총영사(2009~2012)로 근무하고, 올해 7월에 주부산총영사로 부임한 한반도 전문가이다.



경북도, 중소기업 기 살리기 앞장서

영천의 (주)세기리텍 등 12개 업체 신성장기업 표창패 수여

김관용 도지사는 11월 25일 도청 접견실에서 2014년 경상북도 신성장기업으로 선정된 도내 12개 업체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올해 경상북도 신성장기업은 영천시 (주)세기리텍, 김천시 (주)유에이종합통신, (주)이지시스템, 칠곡군 (주)월산, 동산정밀, 포항시 (주)삼성, 영주시 실크로드, 구미시 정진전자, 경산시 아카데미정보통신(주), 동일가구, 신우신(주), (주)기남금속 등 12개 업체로, 선정 기업에는 3년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한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혜택과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손, 책임과 포용의 삶’ 주제로 ‘2014 종가포럼’ 개최

종가문화의 상징인 중손의 역할과 위상 조명

경상북도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11월 28일 상주문화회관에서 도내는 물론 타 시·도 중손·중부와 유림단체, 학계에서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종가포럼’ 행사를 개최, ‘중손, 책임과 포용의 삶’이라는 주제로 종가문화의 정신문화적 가치와 현재적 의미를 규명하고, 새로운 위상 정립을 위한 창조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올해 7회째를 맞은 종가포럼은 종가의 상징인 ‘중손(宗孫)’의 역할과 위상을 소개함으로써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전통을 재조명하고, 개도(開道) 700주년에 맞춰 경북정신 및 정체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2014년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조일알미늄(주)

특별상에 구미 (주)케이알 이엠에스, 영천 (주)금창, 문경 (주)력스코



김관용 도지사는 12월 1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2014년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의 영예를 안은 업체와 투자유치 우수 시·군, 공무원 등을 시상하고, “경북에 투자하면 성공한다는 말이 나오도록 기업의 고충을 적극 해결하고, 투자환경 개선으로 기업유치 대박의 꿈을 일궈내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투자유치대상에는 경산 소재 조일알미늄(주), 투자유치 특별상에 구미 (주)케이알 이엠에스, 영천 (주)금창, 문경 (주)력스코가 선정됐으며, 투자유치

최우수 시·군에는 구미시와 성주군, 우수 영천시, 경산시, 영주시, 장려 포항시, 안동시, 칠곡군을 선정하고, 경산시 서춘열, 성주군 김진욱씨가 투자유치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됐다.

데메케 에티오피아 부총리 경상북도 방문

경북도-에티오피아 간 새마을운동 통한 교류협력 확대 요청

데메케 메코넨 하센(Demeke Mekonnen Hassen) 에티오피아 부총리 일행이 12월 3일 경상북도를 방문, 주낙영 행정부지사가 데메케 부총리를 맞아 새마을운동 전수 및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부문에 걸친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 해 9월 김관용 도지사의 에티오피아 방문 시 경상북도와 에티오피아간 교류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논의한 결과로 이뤄졌으며, 에티오피아 부총리 일행은 새마을운동 성공사례를 배우기 위해 경상북도새마을회 및 역사관,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민족증헌관을 방문하고, 새마을운동이 에티오피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제7차 세계물포럼 기념거리 천년고도 경주에 남긴다

경주 인왕동 사적지 내 세계물포럼 기념거리 조성

천년고도 경주에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기념거리가 조성됐다. 경상북도와 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는 12월 4일 주낙영 행정부지사와 이정무 2015 세계물포럼조직위원장, 세계물포럼 블루서포터즈,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기념거리 지정식을 개최했다.

세계물포럼 기념거리는 총 면적 1,100㎡ 규모로 경주시 인왕동 사적지 내(첨성대 인근)에 조성, 주제별로 세계물포럼 존, 경주 존, 아트 존의 3개 구역으로 구분, 세계물포럼을 통해 모두가 물의 풍요를 누리기를 기원하는 메시지와 우리 주변에 다양한 형태와 모습으로 존재하는 물을 형상화한 작품 등을 배치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천시대 맞아 김관용 도지사 예방

지역현안 고속도로사업 등 지역 SOC사업 협력 강화

김관용 도지사는 12월 2일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의 예방을 받고, 한국도로공사의 경북김천시대 출범을 축하하는 한편, 본사 이전을 계기로 한국도로공사와 경상북도가 앞으로 더욱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특히 김 도지사는 남북7축 고속도로 건설(포항~영덕간), 경부고속도로 확장(영천~언양간) 등 지역현안 고속도로사업에 대해 설명, 향후 지역 SOC사업에 대한 한국도로공사 협조와 기술지원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해안의 미래, 포항~삼척 철도시대 열린다!

포항~삼척 잇는 동해중부선 철도 건설사업 기공

경상북도는 12월 5일 울진군 왕피천 둔지에서 김관용 도지사, 강석호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등 기관단체장,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중부선 철도 기공식을 개최했다.

동해안 지역 유일한 교통망인 국도 7호선을 보완하고, 관광객 유치는 물론, 부산, 울산, 포항지역의 산업물동량 수송을 위한 동해선 포항~삼척간 철도건설사업은 단선 일반철도 166.3km를 3조 3,785억 원을 투자해 2018년 완공하게 된다.

동해중부선 포항~영덕 구간 44.1km는 2009년 착공해 2016년 12월 개통, 이날 기공한 영덕~삼척 구간 122.2km는 201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포항에서 삼척까지 승용차 이용 시 소요시간 3시간 10분 보다 95분이 단축된 1시간 35분이면 도달이 가능해진다.



■ 고향으로 돌아온 연어, 크게 증가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는 지난 10월 1일부터 울진군 왕피천을 포함한 도내 3개 하천에 어미연어 포획장을 설치해 2,091마리를 포획,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포획량으로 지난해 1,335마리 보다 회귀량이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센터는 연어 방류의 과학적인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어린 연어의 머리에 첨단 표시장치(Decimal Coded Wired Tag, DCWT)를 삽입해 매년 2~3만 마리 씩 왕피천에 방류하고 있다.



■ 경북도립대, 예천농협과 관·학 교류협력 체결

경북도립대학교는 11월 4일 본관 회의실에서 김용대 총장과 예천농협협동조합 이달호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에는 필요한 우수 인재양성을 위해 예천농협협동조합과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 매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경북도립대학교에 기부하고,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 2014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회의 정기총회

경상북도는 10월 22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해외자문위원회의 김석주 회장을 비롯한 41개국 70명의 해외자문위원과 배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경상북도해외자문위원회의 정기총회'를 개최, 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경북도 국제화 협력사업 활동지원, 해외자문위원 기업 연계 대학생 해외인턴사업과 '모범 청소년 해외 명문대학 탐방' 사업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경북자동차고, 도제식 직업교육 시범학교 지정

경상북도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공동 추진한 '스위스 도제식 직업교육 시범학교' 공모에서 경산시 소재 경북자동차고등학교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에 경북자동차고는 정부로부터 학교 운영 및 시설기자재비 등 2015년부터 20억 원씩 4년간 최고 80억 원까지 지원받고, 참여기업은 일학습병행 기업으로 지정되어 훈련지원금으로 1인당 70여만 원과 기업현장 교수수당 등 연 1,1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 '제52주년 소방의 날' 맞아 유공자 표창

김관용 도지사는 11월 10일 영천소방서 회의실에서 '제52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소방행정자문위원, 안전관리자 등 248명에게 표창하고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오늘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화재발생이 증가하는 월동기를 맞아 한발 앞선 예방과 대응활동으로 안전한 경북 실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울진군, 2016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유치 쾌거

경북 울진군이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2016년 제11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다양한 해양스포츠 경기와 체험행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해양스포츠인의 축제로 요트·카누·수영·철인3종·비치발리볼 등 공식종목과 번외 및 체험종목, 개·폐회행사에 5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다.

■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포트세일즈' 가져

경상북도는 포항영일만항 홍보, 물동량 유치 및 물류거점항만 육성을 위해 11월 1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포항시와 공동으로 대구·포항·구미·영천 상공회의소와 대구·경북 수출입 기업, 물류기업 등 250여 개 회사를 초청해 포트세일즈를 열었다.

■ 일본 7개 도민화장단, 개도 700주년 맞아 새천년 도읍지 방문

경상북도는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재일본 경상북도 도민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외도민회 초청연수회'를 개최, 일본 7개 지역의 경상북도 도민회에서 34명이 참여해 경상도 개도 700주년의 역사적인 의미를 함께 하기 위해 새천년 도읍지가 될 도청 신청사 견학 및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영양 음식다미방의 종가음식을 체험하는 등 고향 경북의 정취를 만끽했다.



■ 경북도 공무원 '지방행정의 달인' 등극

경북도 정책기획관실에 근무하는 전영하 사무관이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제4회 지방행정의 달인'에 선정됐다. 전 사무관은 박근혜정부의 최대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3.0분야에 달인으로 선정, 창조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구성, 토론회 개최

경상북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를 구성, 11월 17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김관용 도지사, 위원 2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좋은 일자리 10만개 만들기'에 대한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도민이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조례를 올해 10월 제정, 경상북도 일자리정책 수립과 추진에 전문역할을 수행할 기구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했다.

■ 제7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거행

경상북도는 11월 17일 안동체육관에서 주낙영 행정부지사, 장대진 도의회의장, 이인술·배선두 애국지사, 이항중 광복회 경상북도지부장, 지역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유족,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다 순국하신 순국선열의 위훈을 기리기 위한 '제7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 경산소방서 신청사 준공

경상북도는 11월 20일 김관용 도지사, 경산시장, 내빈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 신대부적지구에 새롭게 신축한 경산소방서 신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경산소방서 신청사는 2013년 6월부터 사업비 76억 원을 들여 8,352㎡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축면적 4,030여㎡ 규모의 대양광설비를 갖춘 친환경 건물로 건립, 첨단정보통신설비, 심폐소생술 교육장 및 화재조사분석실, 방범시범실 등을 갖추었다.



■ 서울에서 수도권 CEO초청 투자유치 설명회

경상북도는 11월 18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북해관광테마파크, 리조트, 호텔, MICE산업, 기업연수원 등 서비스산업 투자유치를 위해 수도권 대기업 CEO, 출향기업인, 자산운용사, 투자자,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경상북도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다.

■ 농업명장, 예비 귀농인들에게 현장순회 교육

경상북도가 11월 27·28일 양일간 안동, 영주, 문경 등 3개 시군에서 대구·경북 제대군인 부부 24명,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퇴직예정자 부부 23명, 일반인 신청자 6명 등 모두 53명의 예비 귀농·귀촌인이 참가한 가운데 류충현 안동 버섯명장, 강성찬 영주 인삼명장, 윤창영 문경 오미자명장으로 부터 배우는 '경북 농업명장 현장 순회교육'을 개최, 농촌 현장과 농업신기술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 세계유산도시 안동에서 2014 세계유산포럼 열려

경상북도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문화재청, 안동시와 공동주최로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한국위원회가 주관한 '2014 세계유산포럼'을 개최, '세계유산 보호와 기후변화'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정부, 자치단체, 세계유산전문가 등 1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 2014 전국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평가대회 최우수

경상북도는 지난 11월 28일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시·군구 평가에서는 영천시의 '고(go)구(9)마 프로젝트'가 우수기관상을 수상하고, 포항시가 주민 홍보상에 선정되는 등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모든 분야에서 높은 수준임을 입증 받았다.

■ 청색계란 생산 특허 기술이전 협약 체결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는 12월 1일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색계란 생산 특허기술 2건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을 가졌다. 이번에 기술이전 된 특허권은 '청색계란 생산방법(등록제10-0592550호, 2006. 6. 15)'과 '저콜레스테롤 함유 청색계란 생산방법(등록제10-0592551호, 2006. 6. 15.)'이며, 기술이전을 받는 영주 소재 대목농장은 영주, 제천, 영월에서 유기농 유정란을 생산하는 양계전문농가로 현재 서울 현대백화점(강남점) 외 대형매장 8개에 1일 20,000개 정도를 납품하는 기업농이다.

■ 2015년도 임산물 수출특화지역육성 공모사업 선정

경상북도는 산림청에서 실시한 '2015년 임산물 수출특화지역육성 공모사업'에서 청도지역 농업회사법인 네이처팜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공모사업'은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임산물 주산지에 급속 냉동설비, 자동선별장비 등 유통·가공 관련 시설을 집중 투자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20억 원(국고 10억, 지방비 4억, 자부담 6)을 투자, 고품질 임산물 생산을 통한 수출특화지역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 전국 통계발전 시책평가 최우수상 수상

경상북도가 올해 통계청 주관 '전국 통계발전 시책평가'에서 광역도와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해 실시한 전국 최초의 사회조사인 '경상북도와 23개 시·군 사회조사 표준화'로 최우수상을 수상,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은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번 평가는 통계청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모든 승인통계를 대상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모해 창의성, 효과성, 파급성, 연계·협력성, 노력도를 심사기준으로 평가했다.

■ 포항 진심식품 강영화씨 올해 수산 신지식인 우수상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는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추진하는 '2014년 수산 신지식인'에 경북 포항 소재 진심식품 사업본부장 강영화(54세)씨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강영화씨는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에 기여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신지식인 10명 중 우수상을 받았다.

■ 2014년 경상북도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경상북도는 11월 28일 경산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2014년 경상북도 에너지절약 촉진대회'를 개최, 올해 경상북도 에너지절약대상 우수기업 대상에 (주)영풍 석포제련소, 최우수 OIC(주) 포항공장, 우수 포항공과대학교, 석화에너지(주), 민간부문상자로 (주)포스코 김영표 외 8명, 공공기관 대상에 경산시, 최우수 안동시, 칠곡군, 우수 포항시, 의성군, 에너지담당 공무원 유공자 상주시 축산유통과 김홍희 외 2명을 시상했다.

■ 전국 처음으로 해삼양식 성공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전복양식에 성공했다. 지금까지 해삼은 마을어장 씨 뿌림 양식 수준이었으나, 도 어업기술센터에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소재 무지개수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축제식 복합양식사업에서 지난 4월 어린해삼(15g) 3만 5천마리를 입식해 현재 약 60g 정도 양호한 성장을 나타내고, 생존율도 80% 이상으로 동해안 해삼 완전양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경북도, 산림행정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경상북도는 산림청 주관 2014년 전국 산림분야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선정, 2011년부터 4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시·군 대상 우수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도 전체 10개 시·군 중 과반수가 넘는 6개 시·군(구미, 김천, 청송, 고령, 성주, 예천)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상북도의 뛰어난 산림행정력을 다시 한 번 과시했다.



■ 경북도립국악단·전북도립국악원 무용 교류공연

경상북도 도립국악단과 전라북도 도립국악원은 12월 3일 안동 문화예술회관에서 경북·전북 무용 교류공연을 열어 신라문화권과 백제문화권의 환상적인 예술적 조합을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상호교류 방문공연 및 작품제작 공동개발 등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경북 안동공연에 이어 2015년은 전북에서 교류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 경상북도 문화예술과 053)950-3567 / 도립국악단 053)320-0297

■ 4분의 기적! 심폐소생! 내 손에 달려 있다

경상북도는 12월 2일 경산 소재 경일대학교에서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00여 명의 경일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직접 구성한 심폐소생술 시뮬레이션, 플래쉬몹(FLASH MOB) 행사를 개최, 일반인들에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응급처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골든타임 4분의 기적' 홍보활동을 펼쳤다.



■ 경북 이·통장 한자리 모여 화합과 친목 다져

경북도는 12월 2일 상주실내체육관에서 주낙영 행정부지사, 김중태 국회의원, 장대진 도의회의장, 이정백 상주시장, 김경환 경북이·통장연합회장 및 회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이·통장 한마음 단합대회'를 열어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 지역희망박람회 참가, 경북 생활권사업 홍보

경상북도는 12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에 참가, 경북의 생활권사업 비전과 다양한 정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구성해 경북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권사업의 홍보 활동을 펼쳤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 '행복나르미' 표창 수여

경상북도는 12월 3일 경주대명리조트에서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집배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경북 행복나르미 워크숍'을 열고, 모범 행복나르미 21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도는 경북지방우정청과 2009년 9월 6일 '행복나르미' 업무협약(MOU)을 체결,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 집배원을 '행복나르미'로 위촉해 일선 현장에서 위기 가구의 조기 발굴·보호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 경북도, 대기업-중소기업 기술협력 파트너십 구축

경상북도는 대기업·중소기업간 기술협력 활성화 및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해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경주 현대호텔에서 '함께하는 기술, 함께하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2014년 동반성장페어'를 개최, 삼성전자, 포스코, SK C&C 등 지역 주력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기업 30여 곳과 중소기업 280여 개에서 5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인대회 열려

경상북도는 12월 3일 주낙영 행정부지사와 도의원, 시장·군수, 유관기관·단체장,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 및 가족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청 대강홀에서 (사)경상북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주최로 '친환경농업인의 자부심, 희망찬 경북농업'이란 슬로건 아래 '제4회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인대회'를 열어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먹거리 생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 '실라리안' 덕분에 해외수출 뚝뚝!

경상북도는 12월 5·6일 양일간 경주 테케이호텔에서 경북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13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 등 4개국 9개 업체 해외바이어를 초청, 지난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올해 두 번째로 수출상담회를 개최, 수출상담 53건, 수출상담액 530만 불의 큰 성과를 거뒀다. 한편 경북도는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육성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1월 20일 중소기업청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주관 '전국일사천리대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경북농민사관학교 농업기술원과정 합동수료식 개최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2월 5일 농업인회관에서 '농업인이 웃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2014년 경북 농민사관학교 농업기술원과정 합동 수료식'을 열었다. 올해 농민사관학교 5개 농업기술원과정은 지난 3월 합동개강식을 시작으로 10개월간 총 70~200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 및 체험 등 현장견학으로 진행, 농사일과 교육 병행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생 127명 가운데 119명이 수료했다.

■ 지방자치와 분권화 강화 정책토론회 참석



장대진 의장은 12월 4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장과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주관한 '지방자치와 분권화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 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추후 지방자치법개정 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연구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의 위헌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하여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소송까지 검토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 소속 실무위원회 연구활동 돌입

지난 9월 26일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주도하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가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만장일치로 출범한 이후,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법개정 실무를 논의하는 기구인 특별위원회 소속 실무위원회가 10월 16일 서울 대 한지방행정공제회관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11월 20일에는 대구 수성관광호텔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실무위원회는 향후 1년 동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기초실무작업을 전담, 특별위원회의 보완과 의장협의회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특별위원회에 최종 보고하게 된다.



■ 문화환경위, 출연·출자기관 현지 확인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10월 27일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등 소관 출연·출자기관을 방문, 업무추진 현황과 사업계획 등을 청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주요 시설의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등을 점검·확인했다.

■ 교육위원회, 포항양덕초등학교 방문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10월 13일 지방접하로 학생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포항양덕초등학교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지방접하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 파악을 위해 즉시 현장을 방문,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촉



경상북도의회는 10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학계 1명, 법조계 2명, 사회단체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임승환 부총장을 선출했으며, 임기는 3년이다. 자문위원회는 의원행동강령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과 조례준수 여부 및 행동강령의 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계획이다.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개최

제7기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가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10월 17일, 18일 양일간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공통사안을 협의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홍진규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 농수산위원회, 한농연과 현장간담회 가져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10월 8일 경북도청 정문 앞에서 경북농업희생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임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 농업농촌의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고 경북농업의 활로모색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 감사기법 향상 위한 연찬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대구 팔공관광호텔에서 경상북도 본청 및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행정사무 감사 능력 향상을 위한 행정사무 감사기법 연찬회를 실시했다.

■ 원자력안전특위, 원자력 안전관리 상황 점검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10월 30일 경주지역 원자력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하여 월성원전 현황 설명을 듣고, 월성1호기와 온배수 양식장 현장을 점검, 월성1호기 안전성 문제와 원전 주변 지진 빈번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 장대진 의장, “지방분권개헌과 지방자치법개정은 시대적 요청”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11월 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지방분권개헌 포럼 준비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린 ‘국가개조와 지방분권개헌 토론회’에 참석,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향한 시대적 요청이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 예결특위, 도내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11월 4일 영양 음식다미방 사업장, 안동의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건립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11월 20일에는 학교 급식실태 및 신축학교 공사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구미중학교 급식소 및 김천 남면고등학교 공사현장에 대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 경북도의회, ‘의회제도개혁’ 토론회 개최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도기욱)는 11월 6일 대구 EXCO에서 전체 경북도원과 의회사무처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정부학회(회장 김신호) 주관으로 ‘의회제도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김순은 교수와 대구대학교 박기묵 교수의 주제발표를 청취하고, 정영길 농수산위원장, 하혜수 경북대교수,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표, 김찬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진행했으며, 객석에서도 자유토론이 이어지는 등 경북도의회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했다.



■ 장경식 부의장, ‘2014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 선정



장경식 부의장은 11월 19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주관으로 전국 250여개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의정활동 평가에서 ‘2014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 12월 5일 서울 한국노총회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 몽골 울란바타르시의회와 ‘교류협력 의향서’ 체결

장대진 의장은 11월 13일 몽골 울란바타르시의회를 방문, 양 의회간 상호교류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지방 외교 활성화를 위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장대진 의장과 박현국 의원은 다쉬잡즈 바트툴가 울란바타르시의회장, 시의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양 의회간 친선교류 및 협력 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한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 농업·건설·교육 등 경북도와 울란바타르시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여야대표 연쇄 회동



장대진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이자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11월 27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을 각각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 역량강화 제도개선 계획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 아시아포럼21 릴레이정책토론회 참석

장대진 의장은 11월 28일 조찬형식으로 개최된 아시아포럼21 릴레이정책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는 당면한 국가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대안으로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서로 맞물려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대진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역사상 최초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직접 제안, 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의 실무를 담당할 전국 시도의회 입법정책전문가 위주의 실무위원회 구성을 주도하는 등 실질적 자치법 개정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진락 의원, ‘2014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수상

문화환경위원회 이진락 의원이 (주)헤럴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 파워코리아 및 한국소비자경영평가원이 주관한 ‘2014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 부문에서 우수 인물로 선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274회 정례회 결산〉



44일간 일정, 행정사무감사·본예산 심사 도정질문 및 민생관련 안건 심사도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11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4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정례회를 개최, 11월 6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를 개회한 후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경상북도 및 교육청 각 실국 및 도내 사업장, 지역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어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으로부터 2015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11월 24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 전반에 대한 도정 질문을 실시했다.

또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15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본예산에 대한 각 실국별로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5년 본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친 후,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본예산을 최종 처리했다.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전심사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했으며, 이어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그 동안 상임위에서 심사한 각종 안전 및 현안사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최종 처리함으로써 2014년도 마지막 회기로 4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 도정질문 요지

■ 김수문 의원(건설소방위원회)



포항 양덕초등학교가 지은 지 4년밖에 안되었음에도 안전점검 D등급 판정에 대한 향후 대책 및 철거 후 재시공에 대한 견해와 방안, 공사 물품 계약방식을 예산 절약 및 입찰 비리 예방 위해 수의계약보다 경쟁입찰 시행할 대책,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공사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율이 낮은 이유, '경상북도교육청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 의향 등에 대해 질문했다.

■ 최태림 의원(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도내 균형발전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도내 시·군간 불균형 해소 위한 경북도 대책, 부실한 일자리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일자리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농업보조금의 신뢰회복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경북도의 실질적인 대책, 기숙형 중학교 육성 관련 학교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역 간 과열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도 교육청의 대책, 지역거점 기숙형 중학교 설립 이후 교육활성화 방안, 소규모 중학교 등 농어촌지역의 교육 내실화 방안 등에 관해 질문했다.



■ 이수경 의원(건설소방위원회)



경북도 농축산식품분야 예산비율이 타 시·도 보다 낮은 이유, 시·군 농업경쟁력 확보 위해 시·군의 우선순위에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비지원 농업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도지사의 견해, 농업부문 기금조성과 농업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도지사 견해와 경북도 차원 농업자금 지원 대책, 경북도 출자기관인 경북통상이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지, 최고급 한우생산을 높이기 위한 방안, 경북도 친환경 경 버 재배면적의 감소에 대한 대책 등을 질문했다.

■ 최병준 의원(교육위원회)

경북관광공사 경영 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 감포관광단지 관련 민자 유치가 열악한 이유 및 민간투자 유치 방안, 전국적으로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도 방문 외국 관광객이 매년 감소하는 원인 및 외국 관광객 유치 전략, 출자·출연기관의 목적에 적합한 전문 인사를 기용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도입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시·군 관리 소규모 저수지를 도 차원에서 전수조사하여 이용하지 않는 저수지는 다시 자연 상태로 복구·정비할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 박현국 의원(기회경제위원회)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백지화 등 정부 독도정책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독도정책은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독도 실효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독도에 실질적 마을 조성 및 울릉군을 울릉독도군으로 개칭하는 등 대책 필요, 독도예산 규모 확대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경상북도 차원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에 대한 견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성에 대한 견해 등에 관해 질문했다.

■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중단 결정 철회 강력 요구



경상북도의회는 11월 6일 60명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서를 정홍원 국무총리와 외교부·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했다.

장대진 의장은 "독도에 행정기관 설치로 방문객 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영토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정부가 사업 중단 결

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 도의회는 중단 결정이 철회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결연한 독도수호 의지를 표명했다.

■ 한-중 FTA 타결 따른 경북 농어업 피해대책 마련 촉구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11월 11일 영주시 소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행사사무감사 개시에 앞서 '한-중 FTA타결 공식발표에 따른 경북 농어업 피해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 "경상북도는 대표적인 농도로서 타 시도에 비해 농업의존도와 전업농·고령화 비율이 높아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며, 현실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홍진규 의회운영위원장, 전남도의회 방문 교류협력 논의

홍진규 의회운영위원장은 11월 19일 전남도의회를 방문해 명현관 의장을 예방하고, 동·서 화합을 위한 양 의회 간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경북도의회의 의향을 전달하고, 상호교류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양 의회는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의장단 상호방문, 자매결연 체결, 실무추진협의회 구성 등 실질적이고도 의미 있는 교류를 해나가자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함으로써 의회 차원의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 한국복지사이버대학과 관·학 협력 협약 체결



경상북도의회는 11월 25일 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장대진 의장, 임승환 한국복지사이버대학 부총장, 홍진규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의회와 한국복지사이버대학간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재양성 및 공동발전을 위해 관·학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관·학 협력 체결로 한국사이버복지대학에 입학하는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은 입학금 전액과 매학기 수업료 30%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 새누리당 경북도당, 경북도의회 원내대표에 홍진규 의원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12월 3일 정수성 경북도당 위원장과 이광오 선임부위원장을 비롯한 전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경상북도의회 의원협의회 원내대표에 홍진규(군위) 의원을 선출했다.

아울러 수석부대표에 한창화(포항) 의원, 부대표에 강영석(상주), 이동호(경주) 의원, 총무에 오세혁(경산) 의원, 대변인에 조주홍(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 입장 및 관람료 무료

경북도의원 전원 공동발의 동참, 조례 개정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은 10월 27일부터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 입장 및 관람료를 무료화했다. 그동안 산림과학박물관은 일반 1,500원(단체 1,000원), 청소년 1,000원(단체 500원), 어린이 500원(단체 300원)의 관람료를 징수해 왔다.

이번 관람료 무료화 시행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입장료 징수 및 관리 조

례'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안동)이 대표발의 하면서 59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해 입장료 무료에 대한 조례가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은 2004년 5월 개관해 10년 동안 1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산림문화의 전시, 체험교육의 장으로 도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 담당부서 : 산림자원개발원 054-840-8221

영양군·영덕군 수렵장 운영, 2015년 2월 28일까지

경상북도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영양군·영덕군 2개 시·군 1,220km를 수렵구역으로 지정해 11월 20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시·군 수렵장'으로 운영한다.

수렵장 이용은 사전에 해당 시·군에 수렵장 사용료 납부 후 포획승인권을 발급 받은 사람에 한해 가능하고, 사냥개는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승인 시 발급 받은 수렵권(엽전)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포획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등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렵장 개설 지역(시·군)이라도 도시지역,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농묘·사찰·교회 경내구역 등은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수렵장 사용료는 엽구 및 사용일수별로 차등 적용(7~50만원)되고, 포획야생동물은 수렵장별로 서식밀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 수류 3종과 까치, 어치, 꿩, 뫼비둘기 등 조류 13종에 대해 수렵이 가능하며, 시·군별로 포획 수량을 제한했다.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053-950-3512

야생동물, 함부로 잡지 마세요!

2015년 3월 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실시

경상북도는 2015년 3월 8일까지 밀렵 취약기인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한다. 경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산속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엽구(올무, 텃, 뽕그물 등) 수거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에 밀렵·밀거래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기간 내 수시로 단속활동을 펼치며, 지방환경청, 밀렵감시단체 등 민관이 참여한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포획이 금지된 동물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35종(포유류 20종, 조류 61종, 양서류·파충류 7종, 어류 25종)과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동물 479종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야생동물이 포획금지 대상이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은 환경부와 경북도에서 2000년 부터 밀렵·밀거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쳐 적발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366건의 밀렵·밀거래가 적발됐다.

이는 야생동물이 보전에 좋다는 속설과 맹신, 고가의 불법거래시장 형성, 손쉬운 밀렵도구의 제작과 설치 등으로 야생동물의 수효와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야생동물 불법포획이 적발될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적 불법 포획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야생동물 포획은 시·군에서 개장되는 수렵장에서 승인된 종류만 가능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다.

경북도에서는 야생동물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을 목격한 후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도 및 시·군 환경과, 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신고대상 행위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행위, 불법엽구를 설치하거나 독극물 살포행위, 총기 및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하는 행위, 불법포획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 직접 포획하는 행위는 물론 불법 포획물을 소지, 가공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053-950-3024

경상북도, 수입증지제도 전면 개정

수입증지 폐지, 인증계기용 수입증기 사용

경상북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수입증지제도를 전면 개정 10일 27일 공포했다.

전면 개정된 수입증지조례는 기존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제도를 전면 폐지, 인증계기용 수입증지를 사용하게 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납부 및 카드사용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종이 수입증지 인쇄에 따른 제조비용 절감 및 수입증지 판매수수료 절감을 통해 실질적 세입증대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인증계기용 수입증지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수입증지 관리의 효율성 향상과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도 확보하게 되었다.

경북도의 수입증지가 필요할 경우 도내 시·군에 소재한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인증계기용 수입증지를 첨부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이미 민원인에게 판매된 종이 수입증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세정담당관 053-950-2312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과학교육프로그램

녹색미래과학교실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의 테마인 그린에너지에 관한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직접 만들어 보는 **교육체험프로그램**입니다.

Y **교육대상** : 유아, 초·중·고등학생 및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람자

Y **기 간**

•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간 : 2014. 11. 29 ~ 2015. 1. 23

Y **접 수**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홈페이지 및 전화 예약, 이메일 예약, 현장 접수

Y **교 육 비** : 프로그램에 따라 7,000원 / 8,000원 / 12,000원

Y **장 소** : 김천녹색미래과학관 3층 녹색과학탐구존

Y **문 의** : 054)429-3103 / gcsm.gc.go.kr / albatros41@korea.kr

Y **수업시간**

수업시간		정원	대상
주 중 (화~금 / 2회)	주 말 (토~일 / 1일 2회)		
단체 예약시간 (60분, 90분)	10:30 ~ 11:30 (60분)	24명	유아
	14:00 ~ 15:30 (90분)	24명	초·중·고생



제17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2014. 12. 31 ~ 2015. 1. 1 (2일간)
호미곶 해맞이광장 일원



엄마
아빠,
지구의 미래가 궁금해요!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경상북도 도정홍보지 '프라이드 경북'
도민과 함께한 60년

통권 400호

도정홍보지 '프라이드 경북'이 통권 400호를 맞았습니다
60여 년을 함께한 도민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애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정홍보지 '프라이드 경북'은 도민, 출향민 등 누구나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은 전화(053-950-3058)나 반송엽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이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엔
우리가 지켜야할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엔
사랑의열매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소중한 성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대한민국 대표모금·배분기관입니다.

ARS 기부 ☎ 060.700.0060 기부상담 ☎ 053.980.7800 gb.chest.or.kr

후원계좌 농협 731-01-002268 (예금주 : 경북공동모금회)

주최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경상북도**